

## 전남

## 우울한 보성감자 농가

이상기후로 수확량 35% 감소…수익도 40억 줄어

봄철 냉해와 잦은 강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보성 감자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출하마저 늦어져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7일 보성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득량·회천면 914㏊(971ha)를 대상으로 올해 예상수확량 조사를 한 결과 평년대비 35%

정도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성 블감자의 평년 생산량은 2만 4270t 정도였으나 올해 생산량은 이상기후로 인해 8500t이나 줄어든 1만 5770t로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생육상태도 나빠 감자 상품성도 좋지 않으면서 농가수익도 평년 133억 원에 비해 40억원 정도가 감소한 93%

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 같은 보성감자의 수확량 감소는 올봄 이상기후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 했고 3~4월 냉해로 인해 잎과 줄기가 고사해 수확이 15~20일이나 늦어져 정상적인 생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지난달 말부터

봄감자 냉해·습해로 인한 농가별·필자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재해인정 복구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회천에서 감자를 재배하고 있는 신모(보성 회천면)씨는 “쌀값 하락에 이어 각종 특용작물이 기상재해로 인해 작황이 나빠 농사짓기가 갈수록 힘이 든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상기운으로 인해 작황도 좋지 않고 출하시기도 늦어져 감자 농가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확한 피해조사를 통해 농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구인·구직자 만남 주선

광주시 광산구는 최근 구청 7층 회의실에서 관내 8개 중소기업과 구직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구직자 98명이 참여업체의 면접을 통해 채용됐다.

(광산구 제공)

## 고흥 남포미술관

## ‘드로잉 페스티벌’

내일부터 전시회

고흥 남포미술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공간 지원사업으로 ‘드로잉 페스티벌-히로 애리’ 전시회를 9일부터 8월 29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드로잉뿐만 아니라 오브제·사진·판화·미디어 등 작품 60여 점과 함께 드로잉 퍼포먼스·교육 프로그램·관람객 참여 프로그램 등도 진행된다.

오픈ning 부대행사로는 퍼포먼스 아티스트 김광철·무용가 장은정·기타 연주자 서만재와 참여 작가가 함께한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화순 향토자원 발굴

## 조사요원 20명 모집

화순군은 지역내 산재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조사요원 20명을 모집한다.

이번 조사요원 모집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서 대상자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전남도에 두고 있는 고졸 이상 청년실업자(만 15세~만 29세·군필자는 복무기간 만큼 연장)로 제한한다.

대상자는 오는 15일까지 화순군청 군정발전기획단으로 우편이나 전자우편(syc0802@korea.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61-379-3162)

/동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 포스코 가족 사회공헌활동 편다

12일까지 일주일간 국내외 법인 동시 참여

## 사랑의 집 고쳐주기·대대적 바다 정화행사

포스코는 7일부터 12일까지를 ‘포스코페밀리 글로벌 블런티어 워크(Week)’로 정하고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은 ‘포스코페밀리와 광양 시민 하나되기’라는 활동 테마로 7·8일에는 광양시청앞과 광양읍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 주변 등에서 환경 정화작업과 편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27.8km 구간의 해안가를 청소한다.

9일에는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광양제철은 ‘포스코페밀리와 광양 시민 하나되기’라는 활동 테마로 7·8일에는 광양시청앞과 광양읍 포스코 미소금융 광양지점 주변 등에서 환경 정화작업과 편의 시설물을 정비하는 한편 27.8km 구간의 해안가를 청소한다.

9일에는 다문화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장애인 등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게 보다 체적이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가 마련된다.

‘크린오션 봉사단’은 11일 청정한 광양만을 위해 광양시 어민회 및 환경단체 등과 함께 태인동 배암도 해수욕장 주변에서 대대적인 바다 정화 활동을 펼친다.

광양제철 관계자는 “포스코페밀리의 자원봉사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현지법인 포스코페밀리들이

참여해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에게 독서상자 만들어 주기를 비롯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어린이들을 위한 에이즈 예방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 민선 5기 이것이 현안이다

여수시

## 엑스포 대비 도로망 확충 시급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조감도.

6·2지방선거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꿈꾸는 여수시장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성공 신화를 일군 김종석 당선자는 눈 돌릴 틈이 없다.

여수 세계박람회가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람회장 연계 도심도로망 확충 ▲신항 폐쇄에 따른 대체 접안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 확충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과 공직사회 혁신 등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급한 현안= 지난 5월 여수 거북선축제 당시 시내 도로는 마비상태였다. 오동도 주차장에서 종양동 로터리까지 평소 10분 걸리던 것이 이날은 무려 2시간 이상이 소요돼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도심 도로망 확충이 안된 상태에

박람회 기간 중 하루 평균 9~10

박람회장(3.5km) 등 6개소이다.

이 가운데 터미널~박람회장 구간만 총 사업비 396억원 중 올해 130억원의 기체를 발행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도심 도로망 확충이 안된 상태에

박람회 기간 중 하루 평균 9~10

제의 3대 축이 무역항 여수신항이 폐쇄될 경우 1만여명의 종사자는 물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민주당 김성관 의원(여수갑)은 비롯해 여수시의회·여수 상공회 의소·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신항 대체 접안시설 축조에 대한 정부 의지는 소극적인 상태다.

◇해결 방안= 김성관 당선자는 이달 중에 이명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을 만나 박람회 준비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특단의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획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관 당선자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박람회장 연계 도로망·신항 대체 접안시설·숙박시설 유치 등에 대해 묘언을 짜낼 생각이다.”며 “박람회의 모든 준비상황을 시민들에게 재대로 알리 시민들과 함께 이 역경을 해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상습 병목구간 버스터미널 이전해야

## 폐쇄되는 여수신항 대체 항만 개발도

여수시는 엑스포 유치 이후 줄기 차게 박람회장 연계 도로·교통망 구축을 위해 총 1931억원(시비 145억 원)의 예산지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가 교통 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한 도로·교

통망은 ▲터미널~박람회장(길이 2.8km) ▲하멜공원~박람회장(1.71km) ▲미령~만홍~오천(0.7 km) ▲서창~둔덕(5.0km) ▲서창 교차로 개선(L=1.05km) ▲만홍~

만홍~여수신항 단축화 기관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1982년 4월 문을

연 오ップ동 버스터미널 확장·이전</p